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8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50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통성으로	다 같 이
찬 송 411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이석규 목사 2부/ 이성철 목사
성경봉독 출애굽기 20:13	사 회 자
찬 양 1부/ 아버지의 영광/ 나사렛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2부/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6계명(3)	정구영 목사
통성기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215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설 교 자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한지민 전도사

대표기도	박홍기 장로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4:20/ 사회자
찬 양	복음듣고 산을/ 샬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천상의무용팀
설 교	성결 복음의 능력으로/ 이지영 전도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김경범 전도사

대표기도	이영철 목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7:25/ 사회자
찬 양	금빛성가대
설 교	그대로 되리라/ 황금란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1부 사회/ 조수열 목사
2부 인도/ 주성결 집사

1부 예배

대표기도	김요한 목사(부산만민교회 담임)
성경봉독	로마서 5:8/ 사회자
찬 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김정은 자매, 크리스탈싱어즈
설 교	우리 주님(2)/ 이희진 목사

휴식 시간

2부 찬양과 기도

2-5회 11차 다니엘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금요일은 제외)
장소/ 본당 및 2성전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11월 20일(월) ~ 12월 10일(주일)
주제/ 2018년 연합총회

새벽 예배

인도/ 한순영 전도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2성전

제 목 : 6계명 (1)

본 문 : 출애굽기 20:13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살인에는 육적인 의미의 살인과 영적인 의미의 살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적인 의미의 살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설명도 없이 대단히 간략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는 육적인 의미의 살인과 영적인 의미의 살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의 살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 육적인 의미의 살인

첫째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고살과 오살, 그리고 전쟁터에서의 살상,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먼저 고살이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며 오살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의 살상이나 정당방위 등과 같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 살인도 있지요.

성경을 보면 밤에 도적이 들어왔을 때 그 도적을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낮에 도적을 죽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쫓아내거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출 22:2~3).

그러면 고살과 오살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철 연장, 돌, 나무 연장으로 죽인 경우(민 35:16~18), 미움이나 원한을 품고 죽인 경우(민 35:20~21),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하여 죽인 경우(신 19:11~12) 등은 고살죄가 성립이 되어 보수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단 그곳에서 재판을 통해 고살이나 오살이나를 분별하여 고살죄가 성립이 되면 보수자의 손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신 19:11~12).

반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 즉 오살인 경우에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판결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자가 잡혔을 때 재직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하지요(민 35:22~25). 이처럼 의도치 않게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살이든 오살이든 사람의 생명을 취한 경우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고살자는 속전을 받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며 오살자인 경우도 속전을 통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으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살인한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민 35:31~33).

1) 구약에 나타난 육적인 의미의 살인(고살)

① 최초의 살인사건 -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으로 쫓겨난 후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속죄하는 제사인데 아담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제사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결국 사람의 죄도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편리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가인은 이를 어겼던 것입니다(히 9:22).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와 함께 분한 감정이 발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며 수차례 권면을 하셨지만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창 4:7~8).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 왔던 감정을 때를 보아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② 권력 쟁취를 위한 형제 살인사건 - 사사 시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그의 첩 세겜 출신의 가나안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삿 8:31). 그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혈족인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의 형제 70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오직 기드온의 말쑥 아들인 요담만이 피하여 살아남았지요(삿 9:5).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왕이 되었습니다(삿 9:6).

아비멜렉이 스스로 권력을 쥘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신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는 포악하고 반인륜적인 살상을 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세겜 사람들은 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가알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에게 군사적인 도전장도 냈습니다. 이를 세겜의 성읍 장관이었던 스블이 곧장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분노한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세겜을 초토화시킨 후 여세를 몰아 데베스라는 성읍 쳐서 취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로 도망하자 아비멜렉은 망대를 불사르려 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쪽에 맞아 두골이 깨졌지요. 그는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의 병기 잡은 소년에게 죽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칼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신약에 나타난 육적인 의미의 살인(고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마 2:16). 또한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자신의 부도덕을 꾸짖은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마 14:3~11). 유대인들은 스테반 집사도 성전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행 7:57~60). 헤롯 아그립마 1세는 백성의 호의를 얻기 위해 죄 없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살해(행 12:1~2)했으며, 초대 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죽였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오늘날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 테러는 물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범죄의 연령도 낮아지며 죄질도 매우 나빠져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감히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육의 부모에 대한 불효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자살하도록 조종하는 존재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어떤 일로 인해 매우 낙담했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 곧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지요.

자살의 결말은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슬픔과 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지옥입니다. 자살은 내세의 심판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살인죄까지 더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살 사이트를 통해 미혹 받아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5천 명입니다. 지난 2013년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8.5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0년째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피하려고,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 죽었지요(삼상 31:1~4).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두 번째 모략을 압살롬에게 권했다가 그가 시행하지 않자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삼하 17:23).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후회는 하지만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므로 결국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아랫음부에 떨어져 십자가에 매달린 채 4단계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로 이 땅의 삶을 마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살인은 명백한 죄로서 나라의 법에도 크게 저촉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되어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온갖 시험 환난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결코 살인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반디앤루니스 (www.bandinlunis.com) ☎ 1577-403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알라딘 (www.aladin.co.kr) ☎ 1544-2514)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37-7632)

제 48과 팔복 (5)

읽을 말씀 / 마태복음 5:7

외울 말씀 / 마태복음 5:7

참고 말씀 / 히브리서 12:6

교육 내용 / 선한 긍휼의 향기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성도가 되게 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했습니다. ‘궁핍’의 사전적 의미는 ‘가없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누가 범죄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중심에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마음’을 뜻하지요.

이는 성령의 열매 중 양선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양선은 악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런 양선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되,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궁핍입니다.

1. 한없는 용서의 긍휼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일곱 번씩이나 용서해 준다면 크게 관용을 베푼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 하시지요. 이는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완전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베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용서의 긍휼에 대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가 6천 일, 즉 16여 년간을 꼬박 일해서 모은 품삯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3억 원에 해당하지요. 그러니 일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종은 엎드려 절하며 갚을테니 참아 달라며 사정하지요. 결국 임금이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오던 종이 자신에게 ‘일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일백 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불과합니다.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요.

그런데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빛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의 심히 노하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며 감옥에 가두고 말지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상대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혹여 자신이 상대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할 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해도 징계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할 때도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불편한 마음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랑의 권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한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 사랑을 담은 징계의 긍휼

이처럼 용서의 긍휼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긍휼이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징계의 긍휼도 있습니다. 징계의 긍휼 역시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따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 어찌 아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사랑이라 해서 처음부터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는 드물 것입니다. 자녀가 중심에서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테니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고 따뜻하게 안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가 말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계속하여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마음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나가기 전에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징계라도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아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아이가 중심에서 용서를 빈다면 선한 사람은 긍휼이 여겨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혈기를 내고, 아이를 책망하거나 심지어 용서를 빌어도 처벌을 요구하지요.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잘못을 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징계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긍휼이 아닐뿐더러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비록 상대가 잘못을 범했다 해도 그 사람의 입장과 장래를

생각하여 사랑으로 징계할 때라야 징계의 공훈에 속하지요.

성경에는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마 18:15~17).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만일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속한 모임의 윗분에게 말하여 돌이키게 해야지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하되 어떤 범죄라도 사람을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의 공훈을 베풀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공훈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구제의 공훈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구제의 공훈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말로만 안타까워하고 행함이 없다면 공훈이라 할 수 없습니다(약 2:15~16). 진정한 구제는 형제가 어려울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가 굶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에게 내 자녀와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어렵다고 무턱대고 구제하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제하거나, 게을러서 놓고 돈만 있으면 도박하고 술 마시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죄를 짓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구제는 축복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상대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하며 공훈을 베풀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 구제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공훈히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공훈을 베푸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공훈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훈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신 말씀대로 공훈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설령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해도 용서하고 공훈히 여기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실수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훈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공훈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부요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훈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훈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훈히 여김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의 영적인 의미는 누가 범죄하거나 자신을 힘있게 할 때, 중심에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마음을 뜻한다.
2.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 금주 과제

〈참된 복을 좇는 자〉 책자 101~116 페이지까지 읽고 밑줄 쳐오기.

● 알고 넘어갑시다!

‘불순종한 요나를 도왔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

강대국 앓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뜻을 외치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앓수르가 망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간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대풍을 내리셨고, 요나가 탄 배는 거의 난파 지경에 이르렀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만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해도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다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이재록 목사 설교 테이프 안내

- ◆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찬송 외에도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 MP3파일 CD, 설교집, 간증책자, 교재를 안내실 옆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시리즈 설교 및 강해설교 제목설교도 갖추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24), 믿음의 분량(27), 사랑장(20), 심계명(11), 열재앙(10), 성령의 9가지 열매(9), 팔복(9), 출애굽기 강해(16), 레위기 강해(18), 고린도전서 강해(84), 욥기 강해(198), 잠언 강해(299), 요한계시록 강해(100), 천국(59), 지옥(21), 요한복음 강해(221), 창세기 강해(진행중), 요한일서 강해(진행중) 외 다수

구입 및 문의처 / TEL 02-867-7455

온라인번호/ 우체국 013912-01-000175
(예금주/ 만민교회 서점)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전체심방목사: 이중원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정리라 (부:이성숙)	구로구(가리봉동 04-139번지)
2교구장	도유리 (부: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 09-133번지)
3교구장	김은혜 (부:박갑숙)	구로구(가리봉동 2동 3동)
4교구장	김은혜 (부:주지영)	구로구(구로본동 1동 1동 2동 2동 3동 3동 4동 4동 5동 5동) 신도림동 고척동 고척2동)
5교구장	장정미 (부:정동임)	구로구(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천왕동 횡동 온수동 궁동)
6교구장	장정미 (부:권영남)	양천구
7교구장	고경아 (부:황미경)	영등포구(신길동 여의도동)
8교구장	고경아 (부:송안희)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문래동 양화동)
9교구장	류순주 (부:최영신)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10교구장	이달천 (부:김영석)	동작구(성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11교구장	강경희 (부:송재성)	동작구(대방동 노랑진1동 노랑진2동 본동)
12교구장	이성철 (부:서동욱)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이성철 (부:나진홍)	금천구(간송동)
14교구장	천우진 (부:이석규)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5교구장	천우진 (부:문신현)	광명시(하안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6교구장	한지민 (부:원원희 권순희)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17교구장	임학영 (부:박광현)	관악구(신림동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난곡동 남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8교구장	임학영 (부:차천환)	관악구(보라매동 언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19교구장	서덕분 (부:조은영)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교구장	강인모 (부:노영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21교구장	구희선 (부:김복심)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주현권

22교구장	김수정 (부:정진영)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3교구장	김수정 (부: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24교구장	임환택 (부:차경숙)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5교구장	김승신 (부:박애형)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종로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26교구장	김승신 (부:최영자)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27교구장	이지영10 (부:이영인)	인천시(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군)
28교구장	송지형 (부:이영철)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9교구장	한순영 (부:조미정)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30교구장	김진아 (부:강순길)	안산시 시흥시
31교구장	김현주 (부:김영삼)	부천시
32교구장	신푸름 (부:안성현)	인천시(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중국교구장	황금란 (부:신두천, 조영숙)	중국1교구(중국동포)
		중국2교구(중국인)
해외교구장	이지영30 (부:오인숙, 한금주)	해외교구(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남

예배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 소/ 2성전, 1유아실

문의전화/ 02-866-3206, 02-818-7411~3

만민선교원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원 훈/ 사랑

교육특색/ 연령에 따른 능력별 영재 교육

모집대상/ 취학준비, 영재교육반(6,7세)

유아교육반(4,5세)

홈페이지/ www.manminkids.org

문의전화/ 02-818-7421, 02-864-3398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를 인도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교우를 새교우환영실(본당 건너편)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5주 교육프로그램이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에서 있습니다.

• 당회장님 동정

- 당회장님 외국어 저서 469번째 「천국(하)」 삼태어, 470번째 「지옥」 탕글어가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저서 「천국(하)」 세부아노어가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신앙칼럼이 「크리스찬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등에 매주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교회 소식

- 만민뉴스 815호를 발행하였고, 영어(568호), 중국어(452호), 스페인어(247호), 러시아어(214호), 일어(181호), 베트남어(64호), 덴마크어(58호), 스웨덴어(46호), 독일어(25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제2차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 1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필리핀 선교 출장이 11월 27일(월)부터 12월 7(목)까지 있습니다.
※ 강사: 이희선 목사, 공연: 권능팀, 하모니팀
- 스리랑카, 이집트, 파키스탄 선교 출장이 11월 26일(주일)부터 12월 9일(토)까지 있습니다.
※ 강사: 길태식 목사, 특송: 길기쁨 자매(대전만민교회), 업무: 김순오 장로
- 만민기도원 / 2018년도 선교회 정기 연합총회 관계로 오늘 다니엘철야는 없습니다.
- 「2018년도 교회 기도제목」
 - 1) 공간의 운영-재창조의 권능 (요한복음 14:12)
 - 2)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22)
 - 3) 참된 성전 (이사야 60:1)
 - 4) 영적인 사랑 (고린도전서 13:13)
- 2018년도 선교회 정기 연합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남선교회(2성전) ※여선교회(본당) ※가나안선교회(4성전) ※청년선교회(3성전)
※학생주일학교/ 1부 대예배 후 중등부(에이스 하이엔드 2차 식당)
고등부(에이스 하이엔드 1차 식당)
※ 총회 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 1) 기도하는 사람
 - 2)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
 - 3)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
 -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 5)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 6)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 7) 리더쉽(지도력)이 있는 사람
 - 8) 겸손한 사람

- 남선교회총연합회/ 제17회 말씀퀴즈대회 시상식이 오늘 저녁예배 시 있습니다.
- 만민선교원/ 2018년 신입 원아를 모집합니다.
※ 대상 및 문의: 4~7세 ☎ 02) 818-7421, 868-7420
- 예배국/ 미화부: 단꽃꽃이 부원을 모집합니다. ☎ 02) 818-7459
성례부: 부원을 모집합니다. ☎ 02) 818-7459
- 우림북/ 12월 추천도서는 「눈물」입니다. 만민서점과 시중서점에서 판매하며, 책자를 구입한 분들과 A4 1장 이상 감상문을 쓰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 루니스, 북스리브로,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주요 전자책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교우 소식

- 새교우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
- ※ 금주 강사: 김태한 목사 (제목: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 * 새교우를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교회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nc.manmin.org

• 지교회 소식

- 순천만민교회(담임 조석희 목사) 창립 7주년 기념예배
※ 일사: 12월 3일(주일) 오후 3시 30분 (교회 차량출발: 오전 6시 30분)
※ 강사: 이형엽 목사(호남지방회장, 여수만민교회 담임), 특송: 권능팀
- * 지교회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차량 배차 관계로 기획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818-7234

• 교구 소식

- 남구역장 월례회/ 1부 대예배 후 연합회사무실
- 여지역장 월례회/ 11월 27일(월) 오전 11시 6성전
- 4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김현창 집사 맥(설교: 김은혜 전도사)
- 6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김준성 장로 맥(설교: 장정미 전도사)
- 7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유양목 집사 맥(설교: 고경아 전도사)
- 14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4성전(설교: 천우진 목사)
- 16교구 1지역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김영성 집사 맥(설교: 한지민 전도사)
- 27교구 여장년 연합구역예배/ 12월 1일(금) 오전 11시 인천지성전 (설교: 이지영 전도사)
- 중국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11월 30일(목) 오후 9시 3유아실
- ※ 금주 성전 청소: 3교구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 권사회
2018 신입 기관장단 모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여선교회사무실

가나안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1가나안(한화 비즈메트로 지하1층 요리쟁이 고래식당),
2·3·4가나안(백산 디지털벨라차 지하1층 구내식당), 5가나안(한화 비즈메트로 지상1층 김차짜개 전문점)
2018년 정기 연합총회/ 오늘 저녁예배 후 4성전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2성전
※ 설교: 조현송 총지도교사, 찬양인도: 나은영 권사

청년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1·2청년(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3·4·5청년(코오롱 빌란트 2차 식당)
5청년선교회 마무리 모임/ 2부 대예배 후 라임인슈
2018년 정기 연합총회/ 오늘 저녁예배 후 3성전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정구영 목사, 찬양인도: 김예진 전도사

빛과소금선교회

수요찬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성전
※ 설교: 황금란 전도사(녹화 방송), 찬양인도: 김선화 집사

학생주일학교

2018년 정기 연합총회/ 1부 대예배 후 중등부(에이스 하이엔드 2차 식당)
고등부(에이스 하이엔드 1차 식당)
교사 기도회/ 매주일 오전 9시 1유아실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
※ 설교: 김태한 목사, 찬양인도: 최효진 집사

아동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매주일 오전 9시 4성전 (인도: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찬양인도: 김중훈 집사

국내선교

미용인선교회 미용봉사(만민복지타운)/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안내실 앞 출발

• 성도 소식

강인모 권사(2대대 20교구장) 회갑 감사예배/ 12월 2일(토) 오전 11시 30분
※ 남편: 윤정구 성도(8교구, 4-2남)/ 자녀: 윤세영 성도(1가나안), 윤세은 집사(5청년)
※ 장소: 「대림동 썬프라자」, 설교: 조대희 목사
김규식 장로(19교구, 4-1남) 회갑 감사예배/ 12월 2일(토) 오후 1시
※ 아내: 박종미 권사(19교구, 3-3여)/ 자녀: 김양선 형제(4청년)
※ 장소: 「대림동 썬프라자」, 설교: 조대희 목사
전진수 형제(중3/ 1교구, 3-5남 전용식 집사의 자녀)
「제35회 서울특별시장기 레슬링대회」 46kg급 금메달 획득
최성혁 형제(27교구, 2청년)/ 「부평구청장기 전국 격투기대회」 무사베스급(무제한급) 1위
이예담 자매(초등5/ 5교구, 2-2남 이하덕 집사·2-3여 최애숙 집사의 자녀)
한국미술교육학회 주최 「제81회 국제친선학생미술대전」 최우수상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조영은 자매(2교구, 2청년/ 2교구, 3-2남, 안전실 조계환 집사·3-2여, 기도제물 김순희 권사의 자녀)
한상식 성도(23교구)/ 12월 2일(토) 오후 1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99 「펠리체아트홀」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팀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1/26 일

- 00:00 - '하나님의 뜻 2' 이재록 목사
- 05:00 - '선 7' 신동초 목사
- 18:30 - '응답의 열쇠' 신푸름 전도사
- 20:15 - '만민의 간증' 141

11/27 월

- 00:00 - 모두 드려요 48
- 04:55 - '1계명 (1)' 정구영 목사
- 10:20 - '사랑 1' 이재록 목사
- 13:00 - '선 16' 이재록 목사
- 15:30 - '마음발을 개간하자 4' 이재록 목사
- 19:00 - '옛날 옛적에 (시즌2)' 7

11/28 화

- 00:30 - '영의 세계 77' 이희선 목사
- 05:00 - '새 예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조수열 목사
- 06:3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 해보기>' 13
- 08:00 - '요한일서 강해 18' 이재록 목사
- 11:20 - '2계명 (1)' 정구영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05' 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81' 이재록 목사
- 19:45 - '회상 8'

11/29 수

- 00:30 - 권능 스페셜 4
- 05:00 - '목자의 권능의 열매' 길태식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106'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일서 강해 19' 이재록 목사
- 11:20 - '옴기 강해 32' 신동초 목사
- 13:00 - '믿음의 분량 1' 이재록 목사
- 15:00 - '창조와 과학' 14
- 20:05 - '만민의 간증' 980

11/30 목

- 00: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0
- 05:00 -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신동초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107, 108'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4'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2' 이재록 목사
- 15:00 - '모두 드려요 48'
- 16:30 - '알곡달콤 어여쁜 울동 88'
- 19:40 - '내 마음의 찬양 28'

12/1 금

- 00:30 - '마지막 때 4'
- 05:00 - '사랑의 증표' 정리라 전도사
- 10:50 - '회상2 (7)'
- 15:30 - '지옥 1' 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83' 이재록 목사
- 20:40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12/2 토

- 08:00 - '요한일서 강해 22'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4' 이재록 목사
- 16:30 - '영적인 존재들 11'
- 19:30 - '마지막 때 4'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etv.org)

* 에브리온TV 507번 및 KT o!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10번
- 운전을 위한 기도_20번
- 3분 설교_30번(매주 새로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기도_40번(한국어),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70번
- 환자기도는 02-1570 (교환번호 3200번)
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 오후 3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일예배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 매일 오후 9시
■ 기타 녹화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e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etv.org

- Nov. 26 (Sun.)

(John 15:12)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 Nov. 27 (Mon.)

(John 15:13)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 Nov. 28 (Tue.)

(John 15:14)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 Nov. 29 (Wed.)

(John 15:23)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lso."

- Nov. 30 (Thu.)

(John 15:24)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the works which no one else did, they would not have sin; but now they have both seen and hated Me and My Father as well."

- Dec. 1 (Fri.)

(Hebrews 1:5) "For to which of the angels did He ever say,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And again, 'I will be a Father to Him and He shall be a Son to Me'?"

- Dec. 2 (Sat.)

(Hebrews 2:1) "For this reason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from it."

금주의 성경구절

11월 26일(주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11월 27일(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11월 28일(화)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4)

11월 29일(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 15:23)

11월 30일(목)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 15:24)

12월 1일(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 1:5)

12월 2일(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찌)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 2:1)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주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유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오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율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계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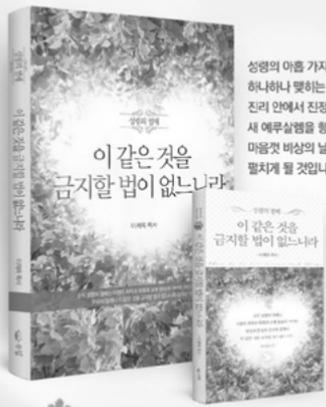
성경과 권는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시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잠들었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들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
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화한한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장영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랑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결투를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11월
추천도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신앙 여정의 이정표

사랑 / 의탁 / 회개 / 오해참음 / 자비 / 양신 / 충성 / 은유 / 질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마음 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는 만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껏 비상한 날개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2017. 11. 1.(수) - 11. 30.(목)

- 1) (전자책 포함) 구입하신 영수증 제출시 추천하여 사은품을 증정
- 2) A4 한장이상 (김상근) 제출시 추천하여 사은품 증정

URIM 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지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핸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아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아들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성리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4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4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2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00	2성전, 3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4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3성전
아동토요찬양예배	토요일 오후 3:00	4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찾아오시는 길



• 교회버스

평일: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30분 간격 운행(오전 8:30 ~ 오후 10:10)

주일·금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문의: 차랑국/ ☎ 02) 818-7391~4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